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

이 상 희* 서 유 란

광운대학교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진로정체감이 Marcia의 모델과 같이 네 가지 지위로 구분되는가를 확인하고,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차를 확인하였다. 연구는 대학생 508명(남학생 297명, 여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척도, 진로탐색행동척도, 진로결정몰입 척도, 진로태도성숙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여 진행되었다. 진로정체감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진로정체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에 따라 Marcia의 모델처럼 네 가지 지위-성취, 유예, 유실, 혼미-로 분류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 분포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가 동일하게 발달하지 않고 있었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네 지위의 분포에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 째, 동일한 정체감 지위에서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성차를 확인한 결과, 자아정체감의 유실지위에서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자아정체감의 유예지위가 유실 지위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였으나, 여학생은 유예 지위와 유실 지위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 째,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와 유실 지위가 유예, 혼미지위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성차 연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 이 논문은 2011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 2011년 정부지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67).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상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7-1번지/ Tel:(02) 940-5420 / E-mail: sanglee@kw.ac.kr

자아정체감이 청년기의 주요한 심리적 발달과제로 제시된 이후, 자아정체감은 청년기 연구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어 왔다(박아청, 2004).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연속성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표현하였으며, 개인은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자신의 신념, 역할, 존재방식 등을 정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Erikson, 1986; Super, 1984; Waterman, 1985), 발달과업인 정체감 확립 대 역할갈등의 과제를 통하여 개인은 직업, 신념,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Super, 1990).

진로(career)는 개인이 가진 정체감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정체감에 따라 진로 선택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진로 결정 능력에 대한 중요한 예언 요인으로 간주되며, 자신에 대한 확신성과 유용성을 높게 지니면서 높은 자아 정체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epich, 1987). 특히 진로발달에서 개인의 정체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진로정체감’이 제시되었는데,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Erikson(1968)의 자아정체감 정의를 직업적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으로서 ‘자아탐색 기회를 통한 자기이해와 올바른 직업세계의 이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 안정된 진로 관련 자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형국, 2007). 즉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이란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Holland, 1985). 명확한 진로정체감이란 목표로 하는 직업의 수가 적으며 진로 의사결정에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김선환, 2007),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Tiedeman & O'Hara, 1963).

최근 국내의 진로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많은 진

로 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에서의 자아정체감은 진로영역에 한정된 협의의 자아정체감이므로, 연구의 주제에 따라 진로정체감으로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별다른 구분 없이 같은 개념처럼 사용되고 있다. 사실 자아정체감 영역의 종류(예, 직업, 가족, 종교, 인종, 성, 정치 등)와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정체감의 발달이 영역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Skorikov & Vondracek, 2007, Waterman, 1985). 실제로 Waterman(1985)은 자아정체감 연구결과들을 횡단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은 정체감 영역에 따라 다른 속도로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의 한 영역인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진로발달과 연결되는 관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확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상인(2001)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 수준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연령에 따라 서서히 발달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수정되고 변화하기 때문에(박아청, 1993), 같은 시기라고 하여도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동일한 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다소 다른 개념으로, 자아개념은 하위영역으로 진로정체감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상위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은 종교, 정치, 철학, 성 역할 등과 같은 다른 영역의 정체성 발달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Skorikov & Vondracek, 1998), 따라서 진로정체성의 발달이 자아정체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연

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연구와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개인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미결정,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uqua, Blum, & Hartman, 1988; Salomone, 1982; 유영미, 문승태, 2005; 이재창, 최정인, 2006; 조명실, 최경숙, 2007). Graef 등(1985)은 진로정체감이 진로성숙 및 진로미결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은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Graef, Wells, Hyland & Muchinsky, 1985). 이외의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은 청소년의 진로발달, 진로성숙과 진로의사결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박주영, 2003; 조은주, 2001; Savickas, 1985; Lopez, 1989)

한편 지금까지 국내 진로연구들에서 진로정체감 대신 자아정체감을 연구의 변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진로정체감 지위를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부족을 생각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지선(2003)이 Melgosa(1987)가 개발한 진로정체감척도(Occupational identity Scale: OIS)를 번안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혼미 지위의 신뢰도가 .32로 나타나 혼미 지위의 학생들을 분류할 수가 없었다.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Holland, Gottfredson 및 Power(1980)가 개발하고 김봉환(1997)이 타당화한 나의 직업적 상황(My Vocational Situation: MVS) 척도의 경우, 다차원의 복합적 구성체인 진로정체감을 단일의 구성체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과 진로정체감이 자아정체감이나 자기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Mauer & Gysbers, 1990; Vondracek, 1992). 김지근(2009)은 진로정체감을 진로탐색행동(자신에 대한

탐색, 환경에 대한 탐색)과 진로결정 몰입의 두 개의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나,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네 지위로 구분하지 않고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 몰입의 각 점수로만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정체감을 지위로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Erikson(1968)의 경우와 같이 정체감 성취 대 정체감 혼미의 단순한 관점이 아닌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정체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체감의 지위에 따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정체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Marcia, 1980). 연구자들은 Marcia(1980)의 정체감 지위 이론이 특정상황에 있는 직업 정체감의 네 가지 지위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혀왔다(Vondracek & Porfeli, 2003). Marcia(1980)의 모델을 따라 진로에서의 자아정체감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몰입의 두 개 과업을 고려해야 한다. 진로탐색이란 잠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모든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진로결정 몰입은 자신의 직업적인 선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특정한 진로목표에 강력하게 애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몰입의 두 과업 중 어떤 과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없으나,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몰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적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되었다. 개인의 진로정체감 지위는 진로 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에 따라 네 지위인 성취, 유예, 유실, 혼미 중 하나로 구분된다(Marcia, 1966). 진로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 지위는 삶의 가치나 직업, 종교 등에서 스스로의 자각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가치를 추구한다. 진로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 지위는 현재 탐색은 하고 있으나 자신의 직업이나 가치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해 타인을 모델로 삼고

자신의 정체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진로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 지위는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깊은 생각이나 탐색 없이 부모에 의해 세워진 직업과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한다. 진로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 지위는 탐색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직업적, 이념적 방향을 아직 세우지 않은 지위이다. 이 지위에 청년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은 혼미, 유실, 유예, 성취 순으로 발달해가지만 일직선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밟아 발달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진로정체감 연구들은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네 지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네 지위의 분포양상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물입의 두 개 척도를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인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구분하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진로연구는 암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공통된 진로발달 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진로발달 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의 진로발달은 남성과 비교할 때,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김은석, 2011; 문미란, 2003), 현대 직업 세계에서 여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진로 발달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여자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한 결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문미란, 2003;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양은주, 한종철, 1999; 이은희, 김승경, 2006). 또한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정옥분, 2010), 김관식(2002)은 남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여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Adams와 Fitch(1982)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체감 성취 지위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남성은 어떤 과업에 접근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취지위의 도달이 쉽고, 여성은 타인이 인정해주는 방식을 중요시하므로 정체감 유실지위나 혼미지위가 되기 쉽다고 설명하였다(Archer, 1989). 그러나 Streitmatter(1987)의 결과에서는 성취 지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봉연(1975)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에 성차가 나타나며, 박아청(2004)의 연구에서도 각 발달지위별 정체감 발달에서 중학생은 성차가 없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아청(2004)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아정체감에서 성차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성의식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Waterman(1982)은 자아정체감의 성차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자아정체감 몇 개의 하위영역에서 성차가 발견되지만 자아정체감 발달 자체에는 성차가 없으며, 하위영역에서 발견되는 성차들은 문화적 영향의 작용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Marcia는 정체감의 성취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남자는 청년 후기에 반드시 위기(탐색)를 경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따라서 위기를 경험한 유예지위가 정체감 성취 지위와 가장 많은 특성을 공유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였으나 안정성을 갖게 된 유실이 정체감 성취 지위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는 정체감 성취지위의 발달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예, 유실, 혼미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정체감 성취지위의 다음이 유실, 유예, 혼미로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Gillatin(1975)도 남성의 경우는 위기와 수행을 거쳐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정체감 확립을 위해 반드시 위기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보

고하여 입장을 같이 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체감을 지위로 구분하여 진로발달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진로정체감 지위에서 이미 유의미한 성차를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성숙의 발달수준에도 성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를 함께 고려한 진로발달수준을 알아보고,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남학생과 여학생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에 따라 Marcia의 진로정체감 네 지위로 구분될 것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지위 분포에 성차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수준에 성차가 있을 것인가?

방 법

대 상

서울, 경기, 경북, 충남 소재의 4년제 대학교 52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한 총 50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명(%)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전 체 |
|-----|--------------|---------------|---------------|--------------|----------------|
| 남학생 | 38 (12.8) | 152 (51.2) | 58 (19.5) | 49 (16.5) | 297 (58.5) |
| 여학생 | 29 (13.7) | 82 (38.9) | 66 (31.3) | 34 (16.1) | 211 (41.5) |
| 전 체 | 67 (13.2) | 234 (46.1) | 124 (24.4) | 83 (16.3) | 508 (100.0) |

도 구

자아 정체감 척도

Bennion과 Adams(1986)가 최종 개정한 ‘자아정체감 지위 척도’ 확장 개정판(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EOM-EIS2)을 신행우(2001)가 번역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EOM-EIS2는 크게 관념 정체감(ideological identity)과 대인 정체감(interpersonal identity)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합으로 전체 정체성을 측정한다. 관념정체성은 직업, 종교, 정치, 철학적 생활양식의 4개 영역이 포함되며, 대인 정체성은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및 여가활동이 포함된다. 신행우(2001)는 요인분석 결과 전체요인 중 관념 정체성 영역의 문항과 대인 정체성 영역의 문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요인이 3개 밖에 되지 않아 필요에 따라 이 두 영역을 따로 떼어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정체감의 영향을 살피는 것이므로 관념정체성 영역의 32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문항 예: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결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정체성 지위는 각 ‘단계 점수 평균 + 1 표준편차(SD)’를 절단점(cut off point)으로 사용하며, 응답자가 네 가지 단계 중 하나에서만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그 정체성 단계로 분류된다(Adams, Bennion & Huh, 1989). 예로, 유실 지위 점수만이 절단점 이상인 경우 응답자는 유실지위로 판정된다. 정체성 지위들은 혼미-유실-유예-성취의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되며 만약 응답자가 한 개 이상의 지위에서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면 정체성 지위 중 가장 낮은 지위로 판정된다. 예로, 혼미, 유실, 유예 지위에서 모두 절단점 이상을 받은 경우라면, 응답자는 가장 낮은 지위인 혼미 지위로 분류된다. 만일 응답자가 네 가지 지위 모두에서 절단점 미만의 점수를 얻게 되면,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로 분류된다.

진로탐색행동 척도

진로탐색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진숙(1998)과 Kidney(1992) 등이 사용한 척도를 최동선, 정철영(200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진로탐색행동 척도 28문항을 사용하였다(문항 예: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진로의 선택과 결정을 위해 다양한 매체나 경로를 통한 진로탐색행동의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하위 영역은 직업탐색행동과 자기탐색행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최동선(2003)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전체 문항 .93이었고 직업 탐색행동 .91, 자기탐색 행동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전체 .92, 직업 탐색행동 .92, 자기탐색 행동 .82로 나타났다.

진로결정몰입 척도

Blustein, Ellis 및 Devenis(1989)가 개발한 진로탐색 및 몰입도구(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VECS) 척도를 최수정(2007)이 번안한 진로결정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몰입 척도는 진로결정에 몰입한 수준과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문항 예: 어떤 직업에 완전히 집중할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고, 원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몰입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개념적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ustein 등(1989)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태도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10개의 결정성 문항과 10개의 준비성 문항, 9개의 독립성 문항, 8개의 목적성 문항과, 10개의 확신성 문항으로 총 5요인 4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5에서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전체 .74, 결정성 .84, 목적성 .79, 확신성 .68, 준비성 .68, 독립성 .75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은 SPS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2. 남학생, 여학생, 전체의 측정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과 상관관계

| 변인 | 남학생 (N=297) | 여학생 (N=211) | 전체 (N=508) | 성별 (t) | 남학생(N=297) | | 여학생(N=211) | |
|-----------|----------------|----------------|---------------|-----------|------------|--------|------------|--------|
| | | | | | 1 | 2 | 1 | 2 |
| 1. 진로탐색행동 | 78.1(17.9) | 82.2(18.1) | 79.9(18.1) | -2.5* | | | | |
| 2. 진로결정몰입 | 60.6(10.2) | 60.1(10.8) | 60.4(10.4) | .6 | .40*** | | .44*** | |
| 3. 진로태도성숙 | 106.1(13.3) | 108.2(13.7) | 107.0(13.5) | -1.7 | .31*** | .71*** | .36*** | .73*** |

* $p < .05$, *** $p < .001$

표 3. 진로정체감 4개 지위의 Z값 평균과 빈도

| | 1. 성취 | | 2. 유예 | | 3. 유실 | | 4. 혼미 | | | | | |
|--------|--|--------|--------|--------|--------|--------|--------|--------|-------|--------|---------|-------|
| | 남자(54) | 여자(46) | 남자(96) | 여자(70) | 남자(67) | 여자(46) | 남자(80) | 여자(49) | | | | |
| | t | | t | | t | | t | | | | | |
| 진로탐색행동 | 1.1182 | 1.1941 | -.62 | .3751 | .5234 | -1.91 | -.4105 | -.2092 | -1.87 | -1.204 | -1.0924 | -1.8 |
| 진로결정몰입 | 1.3222 | 1.2378 | .59 | -.5267 | -.5088 | -.25 | .6868 | .5402 | 1.63 | -.7528 | -1.0631 | 2.91* |
| 진로탐색행동 | 남자; $F=238.7^{***}$ scheffe 사후검증: 1>2>3>4, 여자; $F=140.8^{***}$ scheffe 사후검증: 1>2>3>4 | | | | | | | | | | | |
| 진로결정몰입 | 남자; $F=222.9^{***}$ scheffe 사후검증: 1>3>2>4, 여자; $F=165.7^{***}$ scheffe 사후검증: 1>3>2>4 | | | | | | | | | | | |

* $p < .05$, *** $p < .001$

연구 결과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들의 평균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로탐색 행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몰입과 진로태도성숙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진로태도성숙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진로정체감 네 지위의 분류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가 Marcia의 네 가지 지위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 척도를 사용하여 먼저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으로 Ward의 위계적 군집분석과 제곱 Euclidean 거리법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적절한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

하였다. 다음으로 이전의 단계에서 확인된 4개의 군집으로 집단이 형성되도록 비계층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하면서 군집의 평균 중심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K-평균 군집분석법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K는 군집의 수를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11). 이를 통해 군집분석의 목적대로 군집내의 구성원들은 가급적 유사하게, 그리고 군집들 간의 대상은 가급적 다르게 그룹핑(Grouping)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남학생 297명과 여학생 211명이 각기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지위와 일치하였다. 즉,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을 통해 진로정체감 군집이 4개로 결정되었다. 4개 집단의 Z값 평균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표 3과 그림 1,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군집 1은 혼미 집단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이 모두 평균점 이하이며, 남학생 80명(26.9%)과 여학생 49명(23.2%)이 속해 있었다. 군집 2는 유예 집단으로 진로탐색행동은 평균 이상이지만 진로결정몰입이 평균이하인 집단으로 남학생 96명(32.3%)과 여학생 70명(33.2%)이 속해 있었다. 군집 3은 성취집단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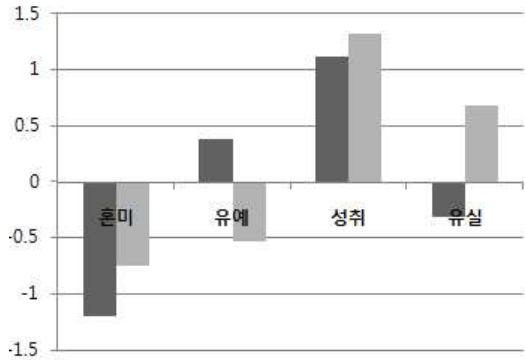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진로정체감 네 지위의 Z점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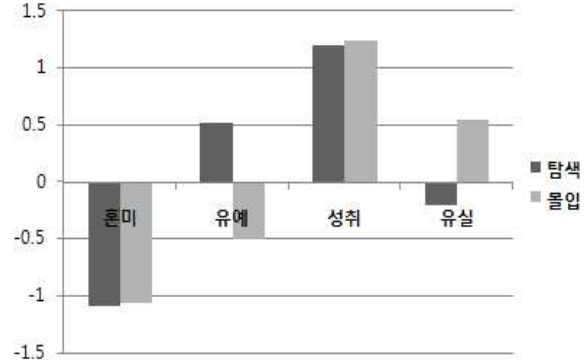


그림 2. 여학생의 진로정체감 네 지위의 Z점수 평균

표 4. 자아정체감 지위분포의 성차

명(%)

| 성별 \ 자아정체감 | 성취 | 유예 | 유실 | 혼미 | 합계 | 분석 결과 | |
|------------|--------------|---------------|--------------|---------------|--------------|----------------|------|
| 남자 | 43 (14.5) | 121 (40.7) | 62 (20.9) | 71 (23.9) | 297 (100) | X ² | 3.95 |
| 여자 | 28 (13.3) | 102 (48.3) | 32 (15.2) | 49 (23.2) | 211 (100) | | |
| 합계 | 71 (14.0) | 233 (43.9) | 94 (18.5) | 120 (23.6) | 508 (100) | Cramer V | .088 |

표 5. 진로정체감 지위분포의 성차

명(%)

| 성별 \ 진로정체감 | 성취 | 유예 | 유실 | 혼미 | 합계 | 분석 결과 | |
|------------|---------------|---------------|---------------|---------------|--------------|----------------|------|
| 남자 | 54 (18.2) | 96 (32.3) | 67 (22.6) | 80 (26.9) | 297 (100) | X ² | 1.55 |
| 여자 | 46 (21.8) | 70 (33.2) | 46 (21.8) | 49 (23.2) | 211 (100) | | |
| 합계 | 100 (19.7) | 166 (32.7) | 113 (22.2) | 129 (25.4) | 508 (100) | Cramer V | .055 |

로결정몰입 모두 평균이상이며, 남학생54명(18.2%)과 여학생 46명(21.8%)이 속해 있었다.

군집 4는 유실집단으로 진로결정몰입은 평균이상이나 진로탐색행동은 평균이하이며 남학생 67명(22.6%)과 여학생 46명(21.82%)이 속해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정체감 4개 지위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의 Z점수 값에 성차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지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혼미 지위에서 여학생의 진로결정 몰입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하게 진로정체감 혼미지위로 분류되었어도 여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의 비교분석

Adams, Bennion & Huh(1989)가 제시한 분류규칙에 따라 자아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모든 지위의 평균점수 이하에 속하는 낮은 프로파일/미분화 유예 집단이 남학생 87명(29.3%), 여학생 68명

(32.2%)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Adams 등(1989)은 순수한 유예 지위와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를 대개는 유예지위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를 유예지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 지위는 남학생의 경우, 성취 71명(14%), 유예 223명(43.9%), 유실 94명(18.5%), 혼미 120명(23.6%)으로 분류되었고 여학생의 경우 성취 71명(14%), 유예 223명(43.9%), 유실 94명(18.5%), 혼미 120명(23.6%)으로 분류되었다.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성취 54명(54%), 유예 96명(57.8%), 유실 67명(59.3%), 혼미 80명(62.0%)으로 분류되었고 여학생의 경우 성취 46명(46.0%), 유예 70명(42.2%), 유실 46명(40.7%), 혼미 49명(38.0%)로 분류되었다. 남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의 발달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분포에 성차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자아정체감 4개 지위와 진로정체감 4

개 지위의 분포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포차이의 유의미성과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과 분할계수, Cramer V값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에서 성차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이 3.95(p=.00)로 나타났으나, 분할계수(contingency coefficient)의 값이 .088, Cramer V값은 .08로 나타나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정체감 지위의 분포에서 성차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Pearson 카이제곱 값이 1.55(p=.00), 분할계수(contingency coefficient)의 값이 .055, Cramer V값은 .055로 나타나 진로정체감 지위의 분포에서도 유의미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표 6와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Pearson 카이제곱 값이 60.8(p=.00), 여학생의 경우는 41.1(p=.00)로 나타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지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할계수(contingency coefficient)의 값은 대

표 6. 남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분포 명(%)

|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 성취 | 유예 | 유실 | 혼미 | 합계 | 분석 결과 | |
|----------------|----------|----------|----------|----------|------------|----------------|---------|
| 성취 | 19(44.2) | 5(11.6) | 14(32.6) | 5(11.6) | 43(14.5) | X ² | 60.8*** |
| 유예 | 17(14.0) | 38(31.4) | 31(25.6) | 35(28.9) | 121(40.7) | | |
| 유실 | 13(21.0) | 30(48.4) | 13(21.0) | 6(9.7) | 62(20.9) | 분할계수 | .41 |
| 혼미 | 5(7.0) | 23(32.4) | 9(12.7) | 34(47.9) | 71(23.9) | Cramer V | .26 |
| 전체 | 54(18.2) | 96(32.3) | 67(22.6) | 80(26.9) | 297(100.0) | | |

***p< .001

표 7. 여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분포 명(%)

|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 성취 | 유예 | 유실 | 혼미 | 합계 | 분석 결과 | |
|----------------|----------|----------|----------|----------|------------|----------------|---------|
| 성취 | 16(57.1) | 5(17.9) | 6(21.4) | 1(3.6) | 28(13.3) | X ² | 41.1*** |
| 유예 | 17(16.7) | 34(33.3) | 24(23.5) | 27(26.5) | 102(48.3) | | |
| 유실 | 10(31.3) | 10(31.3) | 9(28.1) | 3(9.4) | 32(15.2) | 분할계수 | .40 |
| 혼미 | 3(6.1) | 21(42.9) | 7(14.3) | 18(36.7) | 18(36.7) | Cramer V | .26 |
| 전체 | 46(21.8) | 70(33.2) | 46(21.8) | 49(23.3) | 211(100.0) | | |

***p< .001

체로 .40이상이면 효과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분할계수의 값이 .41, 여학생의 경우는 .40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 집단과 진로정체감 집단의 분포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Cramer V값 또한 4X4 교차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6으로 나타나 효과크기가 큰 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발달 지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태도성숙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여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우선 같은 지위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아정체감은 유실 지위에서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성취, 유예, 혼미 지위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진로정체감에서는 모든 지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자아정체감 발달지위와 진로정체감 발달지위에 각각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양상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정체감 성취지위는 유예, 유실, 혼미 지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은 유예지위가 유실, 혼미지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유예지위가 혼미지위 보다만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고 있었으며, 유실 지위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표 8.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 자아정체감 지위 | 진로태도성숙 | | | 진로정체감 지위 | 진로태도성숙 | | |
|-------------|-------------|----------------|-------|-------------|-------------|-------------|------|
| | 남자 | 여자 | t 값 | | 남자 | 여자 | t 값 |
| 1 성취 | 120.5(11.9) | 125.5(10.6) | -1.82 | 1 성취 | 120.6(11.0) | 122.0(12.0) | -.59 |
| 2 유예 | 107.0(11.8) | 108.5(12.2) | -.92 | 2 유예 | 99.8(9.7) | 102.5(9.5) | -1.8 |
| 3 유실 | 100.7(11.7) | 105.8(11.4) | -2.1* | 3 유실 | 111.5(11.8) | 113.9(9.6) | -1.2 |
| 4 혼미 | 100.5(10.8) | 99.2(10.2) | .63 | 4 혼미 | 99.3(9.3) | 97.9(10.3) | .73 |
| Dunnet 사후검증 | 1>2>3,4 | 1>2,3,4 2>4 | | Dunnet 사후검증 | 1>3>2,4 | 1>3>2,4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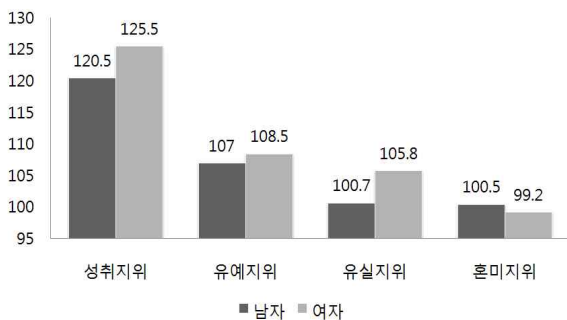


그림 3. 자아정체감지위와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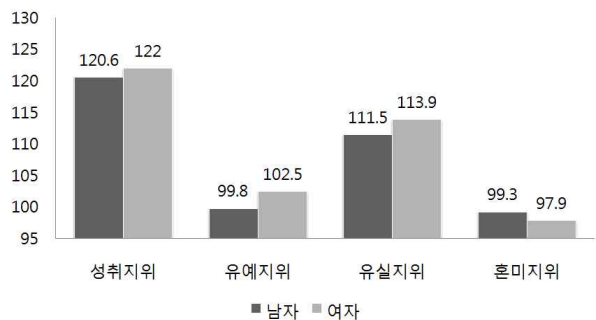


그림 4. 진로정체감지위와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논 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개인의 행동과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 진로정체감의 확립은 대학생 시기의 결정적인 도전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체감은 진로발달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한 가지로 밝혀지고 있으며(Super, 1990), 진로발달에서 개인의 정체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진로정체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진로 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시기라고 하여도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 수준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진로발달은 남성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김은석, 2011; 문미란, 2003), 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위기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Gillatin, 1975; Marcia, 1980). 이처럼 진로발달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과정과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로연구에서 성차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4개 지위 분류를 확인하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에 따라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4개 지위로 분류되는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4개의 군집 - 혼미 지위, 유예 지위, 성취 지위, 유실 지위-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4개 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에 따라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진로정체감 지위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유예지위에 속한 대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다수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 탐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어느 때보다 높은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고, 예전보다 긴 탐색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맥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의 진로연구자들은 진로정체감을 연구할 때 내적,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많은 진로 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Fuqua, Blum, & Hartman, 1988; Gordon, 1981; Salomone, 1982; 유명미, 문승태, 2005; 이재창, 최정인, 2006; 조명실, 2007),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양상을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다른 개념으로 가정하여,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 지위를 비교하고,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우선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 지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진로정체감 발달이 자아정체감 발달과 반드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진로연구에서도 연구자의 관심주제에 따라 일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 지위와 진로정체감 지위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4개 지위 모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정체감 성취 지위가 더 많고 여성은 타인이 인정해주는 방식을 중요시하므로 정체감 유실지위나 혼미지위가 되기 쉽다고 설명하였으나(Adams & Fitch, 1982; Archer, 1989),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지위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체감 발달에 문화나 환경적 영향에 따른 성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 외국의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응용할 때 비교 문화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진로정체감 지위의 분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정체감 지위 별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혼미지위에서 여학생의 진로결정몰입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몰입 척도는 진로결정에 몰입한 수준과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는 동일한 진로정체감 혼미지위라고 하여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결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혼미지위로 분류되는 여학생들은 다른 대학생들보다 진로결정에서 가장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혼미지위의 여학생의 진로지도 특히 진로결정을 돕기 위한 특별한 진로상담이나 지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발달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우선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지위가 같은 경우의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아정체감의 유실 지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rcia(1980)의 이론대로 남성은 위기와 수행을 거쳐 정체감을 형성하지만, 여성은 정체감 확립을 위

해 반드시 위기를 경험할 필요가 없고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였으나 안정성을 갖게 된 유실이 정체감 성취 지위와 비슷하다는 입장을 지지하여 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유실이 유예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유실 지위인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성숙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진로에 미치는 자아정체감의 영향에 성차가 있다는 Marcia(1980)의 이론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여학생의 경우, 진로탐색행동을 거치지 않고 진로결정에 몰입한 경우 같은 유실 지위인 남학생보다 진로성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자아정체감 지위라고 하여도 성차가 존재하며 미래의 연구에서는 정체감 지위나 분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성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로정체감의 발달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지위가 진로성숙을 설명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며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구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자아정체감 발달지위와 진로정체감 발달지위에 각각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양상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진로정체감은 혼미, 유실, 유예, 성취 순으로 발달해 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arcia, 198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아정체감 지위에서는 Marcia(1980)의

이론대로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순서대로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고 있었으나, 진로정체감 지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취, 유실, 유예, 혼미 순서대로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실 진로정체감 유예는 진로정체감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도기적 지위이므로 진로정체감 혼미나 진로정체감 유실보다는 앞선 지위라고 볼 수 있다(Erikson, 1968; Marcia, 1980). 진로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 지위는 현재 진로탐색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직업이나 가치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지위이며, 진로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 지위는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깊은 생각이나 탐색 없이 부모에 의해 정해진 직업과 가치를 수용한 타인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지위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진로정체감에서도 유예 지위의 학생이 유실지위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발달을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정체감의 유실지위인 학생들이 유예지위의 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는 진로 결정이 진로 탐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즉 자신이 결정하건 타인에 의해서건 일단 진로가 결정된 상태일 때 개인이 느끼는 진로태도성숙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평생직업의 개념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실업난과 진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취업시장의 높은 벽은 대학생들에게 충분히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빨리 진로를 결정하여 미리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지각하는 진로태도성숙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경우에는 Marcia(1980)의 이론대로 유예 지위의 학생이 유실 지위 보다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고 있었다. 따

라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체감을 측정하는 진로정체감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진로결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다 폭넓은 개념인 자아정체감에서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탐색과정을 거치고 있는 유예지위가 더 발달된 지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진로탐색을 거치지 않고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아님을 자각하여야 하며 충분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로를 결정한 유실 집단에 대한 적절한 진로 전략과 개입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소수의 제한된 몇몇 대학에서 연구대상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이나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나 청년기 등의 다양한 대상을 표집하여 동일한 설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체감 지위는 모든 대학생을 4개 지위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체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대학생이라면 정체감 중 어느 지위에 더 적합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면서 진로발달의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는 종단연구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아정체감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지위분류 척도에서 Marcia의 네 지위에 속하지 않는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에 많은 대학생들이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dams, Bennion과 Huh(1989)의 기준을 따라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 지위를 유예지위에 포함시켰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 두 지위의 특성 비교와 진로발달의 양상에 대한 확인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관식(2002).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환 (2007).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석 (2011).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근 (2009). **부모와의 친밀-개별화가 진로정체감형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 성장 주도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란 (2003).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아청 (2004).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자아형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일고찰**. **사회과학연구**, 23(1), 411-426.
- 박아청 (1993). **청소년 상담이론 모형으로서의 자아정체성 이론**. **학생생활연구**, 11, 53-70.
- 박아청, 우채영 (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학회**, 22(1), 69-85.
- 박주영 (2003). **역기능적 가족구조가 진로정체감과 직업선택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행우 (2001).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EOM-EIS2)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4(2), 137-152.
- 양은주, 한종철 (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태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1), 79-94.
- 유영미, 문승태 (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1-1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이은희, 김승경 (2006).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총**, 21, 171-185.
- 이재창, 최정인 (2006). **자아정체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9(1), 111-125.
- 이학식, 임지훈 (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형국 (2007).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9).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 연구**, 8(3), 1085-1099.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115-143.
-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R., Bennion, L., & Huh, K. (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Logan, Utah: Utah State University.
- Adams, G. R., & Fitch, S. A.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ross-sequenti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74-583.
- Archer, S. L. (1989). The status of identity: Reflections on the need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12, 345-359.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ew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lustein, D. L., Eliis, M. E., & Devenis, L. D.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342-37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uqua, D. R., Blun,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4), 364-373.
- Gillatin, J. (1975). *Adolescence and individuality*. New York: Harper & Row.
- Gordo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Graef, M. I., Wells, D. L., Hyland, A. M., & Muchinsky, P. M. (1985). Life history antecedents of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3), 276-297.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13.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Kidney, B. A. (1992). *Career exploration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uer, E. B., & Gysbers, N. C. (1990). Identifying career concerns of entering university using My Bovational Situ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2), 155-165.
- Melgosa, J. (198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10, 385-397.
-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ling: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avickas, M. L. (1985).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329-337.
- Sepich, R. T. (1987). A review of the correlates and measurem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4(1), 8-23.
- Skorikov, V., & Vondracek, F. (1998)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ts relationship to other identity domains and to overal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1), 13-35.
- Skorikov, V., & Vondracek, F. (2007). Vocational identity. In V. B. Skorikov,& W. Patton(Eds.),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30(1), 131-146.
- Streitmatter, J. L. (1987). The effect of gender and family status on ego identity development among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7(2), 179-189.
- Super, D. E. (1984).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3), 282-296.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D., & Brooks, L.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97-26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ied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Vondracek, F. W. (1992). The construct of identity and its use in career theory and research.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130-144.
- Vondracek, F. W., & Porfeli, E. J. (2003). The world of work and careers. In Adams, G. R., & Berzonsky, M. D. (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 109-128).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Waterman, A. S. (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sychology.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30, 5-24.

원 고 접 수 일 : 2012. 0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5. 24.

게 재 결 정 일 : 2012. 06. 04.

A Study of Sex Differ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Vocational-identit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Korean College Students

Lee, Sang Hee · Seo, Yu Ran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status,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 total of 508 college students(male 297, female 211)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f self-identity, career exploration,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all of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 referred to Marcia's theory.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stinctions between self-identity status' distribution and vocational identity status' distribution of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but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self-identity status' distribution and vocational identity status' distribution itself. third, even though the same status of self-identity, comparison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meaningful sex differences i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oreclosure status,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college student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sex differences in career attitude maturity by self-identity status. male students in moratorium status reported higher career attitude maturity than those in foreclosure status, whereas female students reported no differences between two statuses. Fifth, in vocational-identity status, bo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achievement and foreclosure status reported higher scor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an those in moratorium and diffusion status.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sex differences, vocational identity status, self-identity status, career attitude maturity.

